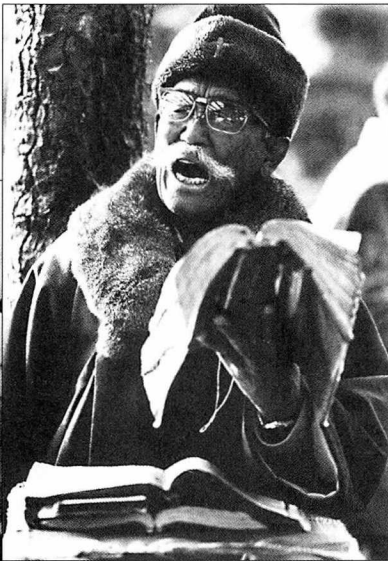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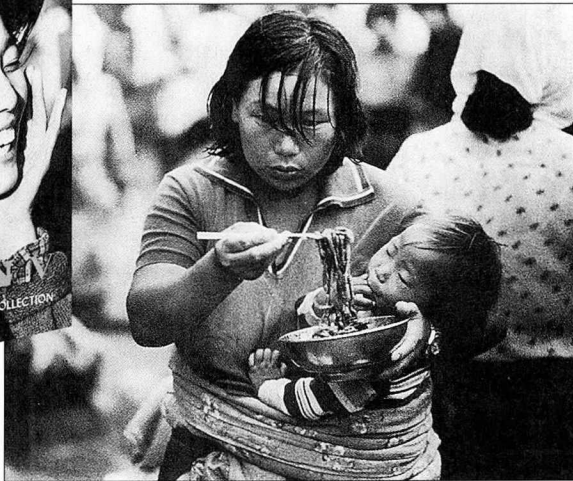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분투

최민식 《인간》



음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주름진 얼굴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역설한 작가의 1982년 작품들.

사진이란 다른 사람이 짊어진 아픔까지 기술해야 한다. 더군다나 민중의 삶을 근원부터 파악하고 그들의 진실한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은 작가적 사명이다. 30여년 동안 민중의 억눌린 삶을 리얼하게 표현하여 많은 파장을 불러왔던 최민식(71)은 사진집 《인간》시리즈(분도출판사 등) 등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역설한다.

선택의 여지없이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은 나약한 존재이다. 아이들은 세상의 활력을 먹고 자라지만 때로는 버거운 존재로 취급당한다. 민중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더욱 험난한 삶의 여정을 준비해야 한다. 모처럼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 길을 나선 아이들의 미소 띤 얼굴에서,

혼자 방치된 아이들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엄마의 등에 엉겨붙은 장터 아이의 잿빛 얼굴에서 결코 갈 수 없는 꿈이 묻어난다.

지나간 삶의 질곡 속에서도 꿈을 잉태한 소년과 소녀들은 어느덧 청춘을 맞이한다. 청춘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주어지는 특권. 이상과 자유를 만끽하는 뒀안길에서 그들은 절망과 고뇌를 함께 한다.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길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중년의 삶은 더욱 험난하다. 온몸이 땅 속으로 꺼질 듯이 이고 지고 생명전선을 떠돌지만 고난의 수레바퀴와도 같은 세상은 중년을 슬프게 한다. 가락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가난 속의 살림을 꾸릴 줄 모르는 자는 노예를 면치 못한다"는 말귀를 몇 번이고 곱씹

어 보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어깨를 짓누른다. 그렇게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이랑 같이 골짜긴 주름살. 피로한 길을 부르듯 달려온 인생, 가난한 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영면을 위한 기도를 울리며 안위를 찾는다.

사진의 사회적 역할과 비판정신을 강조한 그는 음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주름진 얼굴을 통해 인간 존엄성 회복을 역설한다. 이를 위한 분투로 사진집 《인간》시리즈 아홉 권, 《어디 계시나이까》(1982, 흥성사), 《인간이란 무엇인가》(1993, 사람과사람) 등을 펴냈다. 저서로 《리얼리즘 사진의 사상》(1995, 부산일보)을 남겼으며, 현재 경성대에 출강한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8호 / 1998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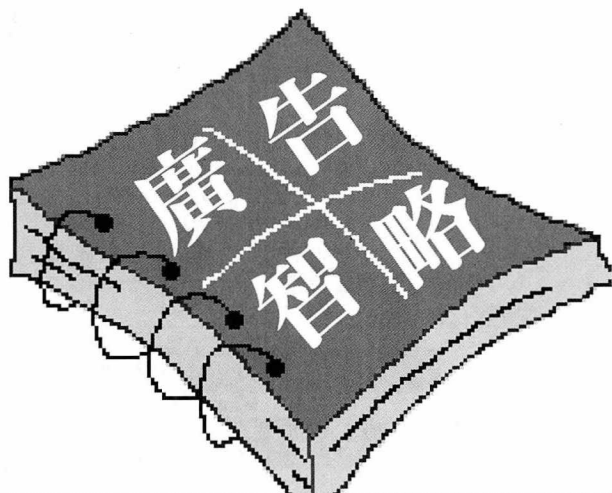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